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유관기관 합동 영농 일손돕기 실시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4.19 17:40 | 11면

인력 부족과 환경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실질적인 도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지난13일 의령군 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부족과 환경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각 기관 임직원들은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발대식을 마친 뒤, 관내 농경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

방치된 영농 폐기물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및 토양오염방지에 앞장서고,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줄기양파 수확작업을 지원하며 땀방울을 흘렸다.

이재경 지사장은 "여러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농촌을 위해 땀 흘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